

동구 사적지 따라 37년 전 오월을 걷자

동구·오월재단, 오월길 코스 수정 ‘민주인권길’ 4월 첫 선
최초 발포지 광주교·항쟁 도화선 MBC 오티 등 투어 진행

5·18민중항쟁의 주무대인 광주시 동구를 중심으로 ‘민주인권길’이 새롭게 조성된다.
광주시 동구는 기존의 오월길 코스를 수정해 5·18민중항쟁의 주무대인 동구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인권길’을 조성, 오는 4월부터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동구는 5·18민중항쟁 37년주년을 맞아 5·18기념재단과 협력해 기존에 있는 오월길 코스인 햇빛코스과 희생코스를 수정해 민주인권길로 만들어 ‘오월로 가는 민주인권길 투어’를 진행할 방침이다.
‘오월로 가는 민주인권길 투어’는 5·18민중항쟁의 역사가 서려 있는 동구의 사적지를 따라 구성된다. 약 8km 코스로, 걸

어서 2~3시간 걸린다.
민주인권길은 5·18민중항쟁 때 계엄군이 비무장 시민을 향해 최초로 총을 쏜 ‘광주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항쟁의 불씨가 도심으로 확산하는데 도화선이 된 ‘광주MBC 오티’, 청년·학생들이 모여 열띤 시국토론을 벌였던 ‘녹두서점 오티’, ‘YMCA 오티’, 최대·최후의 격전지였던 옛 전남도청과 5·18민주광장, 민주화를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느낄 수 있는 조선대학교로 이어진다.
5·18기념재단 측은 계엄군 최초 발포지였던 광주교 앞길을 포함한 민주인권길을 조성하고 안내해설사인 오월지기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인권의식을 기르고, 5·18민중항쟁이 한국 현대

사과 민주화 운동에 끼친 영향을 몸소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어는 오는 3월 신청을 받아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겨울에는 투어를 진행하지 않는다. 투어 신청은 동구청 인권청년과(062-608-2301)나 홈페이지(www.donggu.kr)를 통해 하면 되고, 예약은 답사 예정일 2개월 전부터 최소 1주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 코스 및 투어시간은 이용객들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5·18의 주요 현장은 동구에 몰려있다. 하지만 광주 청소년들조차도 5·18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시민들이 책이 아닌 현장에서 5·18을 느낄 수 있도록 5·18재단과 협의해 민주인권길을 조성하고 안내해설사인 오월지기도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민주인권길 운영코스



“교복 물려 입어요” 신학기를 앞둔 중·고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14일 광주시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교복나눔장터’에서 옷을 고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주혁신도시 에너지·자동차 특성화고 신설

광주교육청 직업교육 발전계획 발표...2020년까지 취업률 60%로

빛가람혁신도시 에너지밸리와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허브’ 도시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특성화고가 신설된다. 또 특성화고 취업률을 60%까지 높이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특성화고 발전대책위원회’를 열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점을 반영, 특성화고를 신설하고 지역 현안과 연계한 학과 개편, 교육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직업교육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진 청년 취업난으로 특성화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 부족한 고졸 기능 인력 확보 등을 내세워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 직업교육을 담당할 학교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경쟁률은 입학 정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2015년 1.23% ▲2016년 1.24% ▲2017년 1.25%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또 일반계고에서 직업교육기관의 위탁 교육을 받는 학생 수도 ▲2014년 540명 ▲2015년 708명 ▲2016년 738명 등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광주교육청은 이같은 점을 감안, 광주시 북구 삼정초를 ‘직업교육 특성화고’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외에 지역 전략산업 및 미래 산업동향, 학생들의 학과별 선호도 등을 고려한 학과 개편 방안

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청은 이와함께 내실있는 직업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28명(2017년)에서 24명(2020년)으로 낮추는 한편, 국가직 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과정에 맞춘 실습실 개선, 기자재 확충 등도 진행키로 했다.
교육청은 이같은 발전계획을 통해 35% 수준의 취업률(2014년 35.8%→2015년 35.2%)을 2020년까지 6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광주시교육청 이영주 미래인재교육과장은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행복한 삶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특성화고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9 해질 18:15
해진 18:15 달진 09:43

봄내음
낮 기온이 크게 올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 지역별 날씨 (℃)
광주: 흐린 뒤 맑음 -3/12 보성: 흐린 뒤 맑음 -4/12
목포: 흐린 뒤 맑음 -2/9 순천: 흐린 뒤 맑음 -1/13
여수: 흐린 뒤 맑음 0/12 영광: 흐린 뒤 맑음 -5/8
나주: 흐린 뒤 맑음 -5/11 진도: 흐린 뒤 맑음 -1/8
완도: 흐린 뒤 맑음 -1/11 진주: 흐린 뒤 맑음 -3/10
구례: 흐린 뒤 맑음 -5/11 군산: 흐린 뒤 맑음 -5/8
강진: 흐린 뒤 맑음 -3/11 남원: 흐린 뒤 맑음 -6/11
해남: 흐린 뒤 맑음 -4/10 흑산도: 흐린 뒤 맑음 2/9
장성: 흐린 뒤 맑음 -5/10

◇ 바다 날씨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 남~남서 0.5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 남~남서 0.5
남부: 앞바다(동) 북서~북 0.5~1.0 남~남서 0.5~1.0
남부: 앞바다(서) 북서~북 0.5~1.0 남~남서 0.5~1.0

◇ 생활지수
매우높음
뇌졸중
매우높음
감기
관심
체감온도

◇ 물때
간조 10:02 만조 04:52
22:25 17:13
여수 05:32 11:49
17:47 --:--

◇ 주간 날씨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0/12 6/8 -2/8 -2/10 2/8 1/8 1/8


봄 한결음 가까이...당분간 강추위 없어

올 겨울 강추위가 사실상 물러갔다.
광주·전남 낮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1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은 대체로 맑겠다.
기온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15일 순천·광양의 낮 최고기온이 13도, 광주·보성의 12도, 나주는 1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수온주는 이보다 더 올라 광주 낮 최고기온은 16도, 광양·나주·목포 13도를 기록,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강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원안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취소’ 항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북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원안위는 14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원안위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수명연장 결정 과정에


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안전성 평가에서도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운영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한 위원회 위원 중 2명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현행 법상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점도 판결의 한 근거가 됐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로 설계수명이 끝나 한동안 가동이 중단됐으나, 2015년 2월 원안위가 ‘계속운전’ 허가를 내려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다.
/연합뉴스



Aroma Life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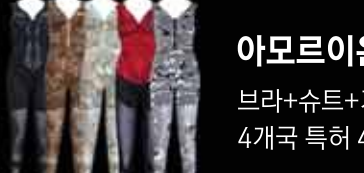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

